



## 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

과장 하종목, 경정 이인표  
(044-200-2082, 2085)

## 이낙연 국무총리, 추석 명절 대비 민생치안활동 상황 점검

-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방문, 관계자 격려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0일(목) 오후, 서울 서초경찰서(서초구 신반포로 소재) 반포지구대를 방문해 ‘추석연휴 종합치안대책’ (서울청, 9. 10~9. 26, 17일간) 등을 점검했습니다.
  - \* (참석)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(치안정감), 김도형 서초경찰서장(총경) 등
  - \* (추석연휴 종합치안대책) △범죄예방활동 추진 및 가정폭력 관리 강화 등 △테러·안보위해 활동 대응 강화, △추석 명절 전·후 형사활동 및 외국인범죄 대응 강화, △교통 불편 최소화 및 소통 위주 특별교통관리 대책 추진
-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대비한 민생치안활동 상황을 점검하고, 국민안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.
- 이 총리는 정동기 반포지구대장으로부터 치안상황을 보고를 받은 후,
  - 반포지구대 근무자들을 직접 격려하면서, 명절 연휴 때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경찰관들을 위로했습니다.

○ 아울러, 추석 명절 빈집털이나 가정폭력, 교통사고 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고,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고속버스터미널과 백화점의 범죄 예방 활동과 반포대교 교통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

□ 이 총리는 특히, 독거하시는 1인 생활자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혹여 사고가 나게되면 완전한 파악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,

○ 이러한 새로운 치안수요에 대해 일선에서도 더 연구하며 근무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

※ (붙임) 1. 서울서초경찰서 현황  
2. 반포지구대 현황

□ **연 혁**

- 1985.12.02. 경찰서 개서(1관, 2실, 9과, 1지구대, 6파출소)  
※ 대지 7799㎡, 건평 9799㎡(지하1층, 지상5층)
- 2006.03.01. 관할 조정(반포 1,2,3동 방배서 이관)
- 2016.03.03. 우면파출소 청사 신축 이전
- 2017.03.28. 내곡파출소 청사 신축 이전

□ **지역현황**

면 적	인 구	세 대	비 고
37.24km <sup>2</sup> (서울시의 6.11%)	283,072명 (서울시의 2.89%)	114,876세대 (1구 18행정동 10.5법정동)	경찰관 총720명 (1인당 담당인구 392.6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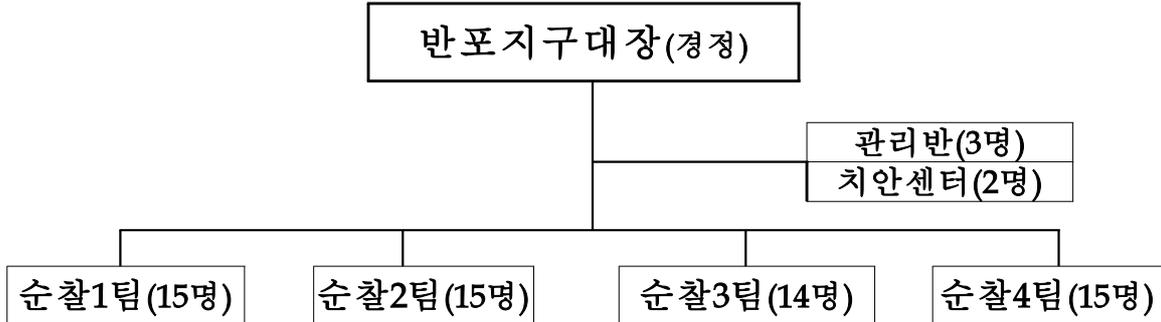
□ **지역적 특수성**

- (서울 남부권 교통 요충지) : 고속터미널, 경부고속도로, 지하철 5개 노선 등 사통팔달의 교통네트워크 형성
- (주요 시설 밀집) : 법원·검찰청, 국정원 등 주요 기관과 현대차, 삼성전자 본사 등 위치
- (최다 유동 인구) : 서울의 중심부인 강남역을 중심으로 유흥가 및 대기업(삼성전자, 롯데칠성, KCC 등)등 밀집
- (법조타운 형성) : 3개 법원(대법원, 중앙지방법원,가정법원)·2개 검찰청(대검찰청, 중앙지방검찰청) 및 법률사무소 등 소재

## 붙임2

## 반포지구대 현황

□ 편 제 \* 총65명 (남 60, 여 5) : 경정 1, 경감 5, 경위 15, 경사 10, 경장 14, 순경 20



### □ 근무 방법

- 대장, 관리반 : 일근근무(평일 09:00~18:00)
- 순찰팀 : 4조 2교대 24시간 근무(주간 → 야간 → 휴무 → 비번)

### □ 관내 특성

- 다중이용시설(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, 경부선) 및 반포대교, 반포IC 교통 요충지
- 백화점, 지하상가 위치 유동인구 100여만명으로 방문민원이 많고 112신고 다발

### □ 신고접수 처리실적(18년 1월~8월)

(단위 : 건)

112접수현황		코드별 112신고 접수현황			
총 계	일평균	코드0	코드1	코드2	코드3이하
17,512	73	213(1.2%)	4,139(23.6%)	9,765(55.7%)	3,487(19.9%)

### □ 5대범죄 발생현황(18년 1월~8월)

(단위 : 건)

5대범죄발생현황		죄종별 5대 범죄 발생 현황				
총계	일평균	살인	강도	강간·강제추행	절도	폭력
841	3.5	0	4	150	435	252